

민족적보

제2833호

2024년 6월 30일 | 연중 제13주일 (교황 주일)

발행 천주교 인천교구 발행인 정신철 편집 천주교 인천교구 홍보실
주소 22573 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 1 이메일 hongbo@caincheon.or.kr



우리 본당 가족사진 <여월동 103위 한국순교성인 본당>, 1983년 설립

입당송 | 시편 47(46),2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제1독서 | 지혜 1,13-15; 2,23-24

화답송 | 시편 30(29),2와 4.5-6.11-12과 13L(◎ 2ㄱL 참조)

-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 주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당신은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당신이 제 목숨 저승에서 건지시고,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나이다. ◎
- 주님께 충실한 이들아,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시 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이니, 울음으로 한밤을 지새워도,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리라. ◎
-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구원자 되어 주소서.” 당신은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니, 주 하느님, 영원히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

제2독서 | 2코린 8,7.9.13-15

복음 환호송 | 2티모 1,10 참조

- ◎ 알렐루야.
-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 ◎

복음 | 마르 5,21-43 (또는 5,21-24.35L-43)

영성체송 | 시편 103(102),1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소경이 치유되기도 하고, 앓은뱅이가 씩씩하게 걸어가기도 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의 치유 이야기에는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이로라고 불리는 회당장의 다 죽어가는 딸의 병을 고쳐 주시는 것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그 집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여인이 병이 낫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둘 중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만 했는데도 병이 나은 여인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돌보아 주셔서 병이 낫게 되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정작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저 살짝 손을 대기만 했는데도 병이 말짱하게 나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아닌 나의 가면을 앞에만 내세우고는 그것을 통해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무진장 에너지를 쏟아붓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가면 뒤에 있는 나의 참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면 갈수록 하혈병을 앓는 여인처럼 내적으로는 탈진하고 쇠약해져 가는 자기 자신만 발견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점점 피상적이고 공허하게 느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앞에 내세운 자신의 가면을 유지하려고 사용하는 에너지를 돌려서 자기 자신에게 쏟아부어야

합니다. 내 생명의 물줄기를 자기 자신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혈병을 앓는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세례를 통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즉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사람이라는 것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영세 때에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세상에서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죽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교인이 됨으로써 세속적인 것과는 담을 쌓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올바른 종교 생활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죽었다는 것은 세상이 이제는 우리에게 힘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는 성공, 능력, 재산, 명예, 지위 같은 세속적인 것으로 나 자신과 나의 삶을 정의하지 않고 하느님에 의해서 나의 삶을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의 가치를 대신할 것을 얻기 위해 허튼 데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잡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좀 더 자주 가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것이 나를 생동감 있게 살아있게 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최경일 빈첸시오 신부
산곡3동 본당 주임

하느님 백성이라는 공동체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에서 마음을 나누는 일을, 우리는 ‘서로를 바라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걷는 이가 누구 인지를 바라보는 것은 시노달리타스 실현을 위한 이 여정에서 중요한 출발점이며 지속되는 길잡이였습니다.

함께 걷는 길 위에서 우리는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평신도로, 누군가는 수도자로, 사제로, 주교로, 교황으로 이 길을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모습이 서로를 구분 짓고 나누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시노드의 여정은 함께 걷는 길 위에서 모든 하느님 백성은 같은 목적지를 바라보는 사람들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목적지, 바로 구원을 향한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이들입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제도, 주교도, 교황도, 평신도도, 수도자도 모두 하느님 백성으로서 구원을 향한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시노드 과정 안에서 모두가 하느님 백성이라는 인식은, 어떻게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교회의 사명과 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느님 백성인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이 받은 소명에 따라 자신의 경험과 능력으로 교회의 사명에 공동 책임”을 집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는 복음화 사명의 능동적 주체로서 스스로 교회의 주체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 활동의 책임이 특정 봉사자에게만 맡겨진 것도, 혹은 사제와 주교에게만 책임지어진 것도 아니라는 점을 시노드 1회기 종합 보고서는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교회 안의 다양한 조직들은 유일한 권위인 하느님 말씀 아래 모여, 모임의 “의미와 힘을 성체성사로부터 길어 올리고, 경청하며 기도 안에서 나누는 말씀의 빛에 비추어”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 말씀의 권위 아래 모여 함께 만나고 함께 나누며 함께 결정하는 과정을 모색하는 것을 시노달리타스 실현을 위한 참여 조직의 중

요한 과제로 제시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모임들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하며, 심의하고, 식별하여 결정에 참여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을 평의회(consilium)라고 부릅니다. 본당에는 사제, 수도자 외에 평신도 대표들로 구성된 사목회라고 일컬어지는 ‘사목평의회’가 존재하고, 교구에는 주교와 대표자들이 함께하는 사목평의회가 존재합니다. 시노드 1회기 종합 보고서는 교회 안의 다양한 평의회에서 교회의 사명을 위해 각 구성원이 식별과 결정의 과정에 참여할 때 시노달리타스는 발전할 것이라고 제시합니다. 특별히, 종합 보고서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배제의 상황에 대해서 그 극복을 위한 성찰을 요청합니다. 전례, 사목, 교육, 제도 안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들의 배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식별하며, 본당과 교구 공동체 안의 단체와 같은 참여 조직에서 발생하는 배제의 문제도 성찰의 주제로 다룰 것을 권고합니다. 모든 하느님 백성은 복음화 사명의 능동적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명형진 시몬 신부 ·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교구 시노드 위원

갈갈수녀님



망설이면 늦어요

나무와 바람과 꽃비

이은숙 바울라(통진 본당)

눈이 부시던 날
나무도 그렇게 눈이 부셨다

그 많은 꽃잎들
어디에 숨겨 놓았었니?

빛이 없던 나무는
바람을 만나
바람의 언어를 듣고
바람과 함께
고이 숨겨 놓은 눈부신 빛을 드러낸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이리도 눈이 부시고 신비로운것일까

눈이 부시던 나무는
아끼고 소중했던
꽃들을 떨어뜨린다

바람에 몸을 맡긴
가날프고 부드러운 꽃잎들
두려움 없이 땅으로 내려 앉는다

어디에 내려 앉을지
아프지 않게 내려 앉을지
두려워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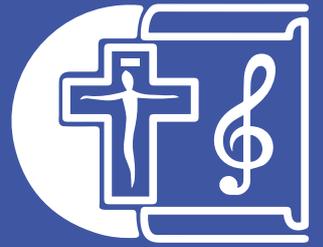
바람이 이끄는대로
바람이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고
평화롭게
눈이 부시게 내려앉는다

나무와 바람과 꽃잎은
그렇게
눈이 부셨다



제4회 인천교구 청년 1945 창작생활성가제 2024



청소년사목국에서는 청년들에게 가톨릭 생활성가를 보급하고 찬양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4회 인천교구 청년 1945 창작 생활성가제를 진행합니다. 본선 진출팀에게는 총상금 380만원과 본 일정 당일 무대 공연 및 음원 발매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성가를 좋아하는 청년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4회 인천교구 청년 1945 창작.작.생.활.성.가.제_2024년

주제 “희망” 주제에 맞는 가사 및 의미 포함
일시 11/24(주일) 15:00~18:00
장소 보니파시오 대강당
대상 교구 내 청년·청장년(만 19~45세)

서류 접수 마감 7/19(금)까지
서류 합격자 대면심사 7/28(주일) 13:00
본선 진출팀 워크숍 8/10(토)~11(주일)
[1박 2일] 필수 참여

문의 카카오톡 채널 「인천교구 청소년사목국」
전화 032-765-6964



알려드립니다!



2024년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청소년세계시민교육(기초과정) 참가자 모집



일시 7~11월 [총 10회기] (토) 오전 프로그램
장소 가톨릭청소년센터 외
대상 초등 4~6학년 총 15명 내외
내용 SDGs 17개 목표 주제로 한 프로그램 활동
모집기한 7/15(월)까지

알려드립니다!



청년·청소년 탐험활동

‘여기모여 season 4’ 2차



활동기간 7/26(금)~9/30(월)
사전모임 7/20(토) 청년공간 엘피스 ※필수 참석
신청기한 7/15(월)까지

‘믿음과 은총’ 코너에 실릴 사진과 일상 신앙 수기를 모집합니다.

익명으로도 게재가 가능하며, 띄어쓰기 포함 1,600자 분량의 원고(A4)를 hongbo032@daum.net으로 첨부하여 보내주시면 선정 후 주보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구청

제4회 교구 청년 1945 창작생활성가제

“희망”(주제에 맞는 가사 및 의미 포함)

대상: 교구 내 19~45세

문의: 032-765-6964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피정 및 교육

“저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일시: 7/19(금) 20:00~21(주일) 13:00

장소: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파주)

대상: 청년 남·녀 누구나

참가비: 6만5천원

문의: 010-9099-2337

예수회 이냐시오영신수련 피정

·[4박 5일] 침묵피정

8/6(화) 저녁~10(토) 18:00

장소: 예수회센터

·일상생활 속의 영신수련 [주 1회]

8/26(월)~12/26(월) 13:30~15:30

문의: 02-3276-7794

교육 | 미사

인천ME 460차 주말

일시: 7/26(금)~28(주일)

장소: 강화 갑곶성지

문의: 032-761-1015

메주고리에 기도 일일피정

메주고리에 찬양기도,

성시간, 미사만수(중식 무료)

일시: 7/1(월) 10:00~16:00

장소: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 사랑의 성령봉사회

지혜의 샘 7월 프로그램

·여름 성가정 피정

7/8(월) 10:00~17:30

강사: 정병덕 신부, 서인석 신부, 한영임 회장

·치유 대피정

7/22(월) 10:00~17:30

강사: 김성기 신부, 이창진 신부, 한영임 회장

·치유 피정

7/31(수) 10:00~17:30

장소: 부천시 경인로 61-1 지혜의 샘 5층

문의: 010-3248-9705

ICPE SONE 새로운 복음화학교

일시: 8/13~18

장소: 수원 양지영성교육원

대상: 가톨릭 신자(예비신자 가능)

문의: 010-5531-1008 「ICPE」 카톡플친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1박 2일] 8/24(토)~25(주일), 9/21(토)~22(주일)

[3박 4일] 7/18(목)~21(주일), 25(목)~28(주일)

[8박 9일] 7/4(목)~12(금), 8/8(목)~16(금)

[40일] 10/4(금)~11/12(화)

장소: 문산 예수마음피정의 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가톨릭문화원 상설 음악피정미사, 무료 콘서트

일시: 매주(주일, 목) 14:00

장소: 가톨릭문화원 아트센터

(김포시 하성면 월하로 970-18)

버스 운행: 13:30

장지역 3번 출구 버스정류장 옆 공영주차장

문의: 1577-3217

노틀담 성소 침묵 피정

일시: 7/19(금) 20:00~21(주일) 16:00

장소: 인천 노틀담 수녀원

대상: 35세 이하 미혼 여성(선착순 9명)

문의: 010-3930-6730

가정선교회 7월 피정 및 미사

·7/3(수) 성가정 영성 피정

박재찬 신부, 이현주 회장

·7/6(토) 토요일피정과 성모신심 첫토 미사

김종섭 신부, 이현주 회장

·7/20(토) 치유, 회복을 위한 찬양 피정

박현민 신부, 찬양: 고영민 부회장 외 8명

일시: 12:30~17:00 가톨릭회관 3층 강당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노고산 성지 월례미사(7/4)

일시: 매월 첫째 주(목) 11:00

(미사 후 성체현시가 있음)

장소: 서강대학교 성이냐시오 성당

문의: 02-705-8161 교목처

바오로딸과 함께하는 피정

여주: 7/13(토)~14(주일) 2030 미혼 여성

8/3(토)~4(주일) 여 중고생

문의: 010-7251-1908

렉시오 디비나 피정

1일 피정: 렉시오 디비나와 첫 토요일 신심미사

7/6(토) 14:00~17:00

4박 5일: 7/17(수) 16:00~21(주일) 13:00

회비: 1일~1만원, 4박 5일~30만원

장소: 양주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도 수도원(양주시)

문의: 010-5230-2986

cafe.naver.com/monteoliveto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월 단식피정

일시: 7/19(금)~27(토), 8/9(금)~17(토),

9/13(금)~21(토)

장소: 화순 수도원

문의: 061-373-3001, 010-3540-9001

교구 가톨릭남성합창단 제100회 성음악 미사

일시: 6/30 19:00

장소: 답동 주교좌 성당

문의: 010-2040-7977

강신우 프란치스코

성모술숯 무료 치유대(對)피정

값 없이 먹고 자고 원 없이 기도하자

일시: 매월 둘째 주(금~주일) [2박 3일]

8/9~11, 9/13~15, 10/11~13

문의: 010-3209-3955 문자 접수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하느님, 바람, 나(힐링피정): 7/5(금)~7(주일)

효소단식: 7/11(목)~14(주일), 8/9(목)~12(월)

성경완독: 7/26(금)~8/3(토), 23(금)~31(토)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24 살레시오 여름 성소캠프

8/10(토)~11(주일) 중1~고2, 건강한 남학생

8/17(토)~18(주일) 고3~35세 이하,

건강한 미혼 남성

장소: 대전 살레시오 교육사목센터

마감: 7/28(주일)

문의: 010-6221-3520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여름성소캠프

일반부: 8/6(화)~8(목) 경남 산청 성심원
중고등부: 8/2(금)~4(주일) 경남 산청 성심원
문의: 010-6608-3217 성소담당 신부
(선착순 모집)

모 집 | 일반

교구 운영 하늘의 문 성당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2025년 상반기 준공(예정)
접수: 인천교구청(송림동)방문 및 온라인위치선정
서류: 교적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 60년(30년, 추가 30년 가능)
봉헌금: 4백만원, 5백만원
접수: 032-765-7251
<http://haneul.caincheon.or.kr>

이승훈 베드로 성지 ‘기도의 벽’, ‘추모의 벽’ 신청

성지 성전에 지향자 성명 각인 1인당-1백만원
10년 동안 매달 1회 미사봉헌
문의: 032-765-6916 인천교구 성지위원회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요양보호사, 주 40시간, 기숙사 가능
문의: 010-7171-9503

교구 가톨릭남성합창단 단원 모집

가톨릭 전례음악 및 성음악을 사랑하는 남성 교우
대상: 남성4부(테너1, 2, 베이스1, 2 각 0명)
장소: 가톨릭음악원 전례음악연구소
연습: (화) 20:00
문의: 010-2040-7977 강신우 프란치스코

글라젯선교수도회 심리상담

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가족관계,
직장 및 학교 부적응, 이주민 자녀진로상담
장소: 부천시 심곡본동 608-7
대상: 개인, 부부, 가족, 청소년
상담료: 1회 1만원
문의: 010-7794-6031

24학년도 여름학기 미래인재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성음악 아카데미
(성악, 오르간, 합창지휘[그룹/개인]),
예술교육(이콘 및 미술)
접수: 5/20(월)~6/30(주일)
수업기간: 7-8월
장소: 인천가톨릭대학교 송도국제캠퍼스
문의: 032-830-7094
<https://mirae.iccu.ac.kr>

가톨릭대 문화영성대학원 후기 2차 신입생 모집

모집: 문화영성학과 (석사과정)
전공: 문화영성, 사목영성
접수: 6/17(월)~7/7(주일)
면접: 7/19(금)
장소: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서울 반포)
문의: 02-3147-8787
<http://gcs.catholic.ac.kr>

제21회 가톨릭 대안 좋은학교 연수

일시: 7/20(토)~21(주일) [1박 2일]
장소: 양업고등학교
대상: ‘좋은(Quality) 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분
접수: 7/9(화) 10:00부터 선착순
회비: 8만원(식비 포함)
문의: 043-260-5076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미사반주법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교육

일시: 7/1부터 (월~토) [10주]
주최: 아퀴나스오르간연구소
문의: 02-338-3793

성가 발성 노래 교실

다 함께 성가를 TV 이호중 교수 직강
일시: 매주(목) 18:30
장소: 답동 주교좌 성당
문의: 010-9842-8818

갯등 OB 중창단 공연

일시: 7/17(수) 19:30
장소: 영종 성당

여름 수련회 초대

일시: 7/13~14
장소: 영흥도 장경리 해수욕장
대상: 일하는 모든 분들
참가비: 3만5천원
주최: 가톨릭 노동 장년회
문의: 032-432-5771

예수성심 인천천교회 (재속)회원 모집

대상: 만 65세 이하 남·녀 교우
문의: 010-8752-9566

수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익산 성클라라봉쇄수도원은
재건축이 불가피하여
수도원을 철거했고, 곧 공사가 시작됩니다.
도움을 겸손되이 청합니다.
후원문의: 010-6680-0692

순례 | 기타

베트남 라방 성모성지

일시: 7/14 출발 [5일] 대한항공 이용
라방성지 숙소 1박 포함
문의: 010-5909-5997 김명윤 베네딕도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8/6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45만원
9/26 조지아, 아르메니아(초기교회 발자취)
[10일] 440만원
10/9 터키, 그리스 [12일] 470만원
10/22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11/4 알프스 주변 수도원 및 성모성지
[12일] 530만원
문의: 02-722-8366

해외 성지순례

9/24 이탈리아 일주
[11일] 545만원(동반자 할인)
10/7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13일] 직항
10/14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85만원
10/23 발칸 3개국, 메주고리에, 헝가리 [12일]
11/21 멕시코 과달루페 성모 발현지 [10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 619호

이오소피아 성지순례

·멕시코 과달루페, 칸쿤 성지순례:
11/11(월) 출발 [10일]
전 멕시코시티 성당 주임신부 동행
·베트남 다낭, 짜케우, 라방 성지순례:
9/9~13 [5일]
문의: 010-8705-0319 최형베드로

대천해수욕장 요나 성당(연수원)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피점,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인근 성지: 갈매못 순교성지, 서짓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문의: 041-934-7758
<https://yonaesort.modoo.at/>

성소모임

미리내 천주성삼성직 수도회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한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갈 새로운 가족 모집
대상: 수도 생활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 및 청년
문의: 010-5195-3217 성소부